

# 聖書로 본 '농경민과 유목민'의 투쟁

쌀문화·육식문화, 토착사상·수입사상의 대립  
식생활의 서구화로 전통적 가치·문화 흔들려



장재우  
전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

역사적으로 보면 기원전 6000년 경에 인류는 수렵시대와 채취시대를 지나 농경시대(農耕時代)를 맞게 된다. 인간에 의해 지상에서 농사와 가축사육이 시작된 것이다. 농사와 가축사육의 시작은 농업의 시작을 의미한다. 그리고 또 식량생산을 의미한다. 농사는 곡물을 생산해 식량으로 하는 것이고 가축사육 역시 고기를 생산해 식량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곡물을 생산하여 주식으로 삼던 민족은 농경민족을 형성하게 되었고 동물을 길러 고기를 얻던 민족은 유목민족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 두 민족 사이에는 끊임없는 투쟁(鬪爭)과 반목(反目)의 역사가 되풀이 되어 왔다. 지금도 쌀을 먹는 민족과 고기를 먹는 민족 사이에는 문화적

갈등과 정치적 대립이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쌀문화와 육식문화가 양(洋)의 동서를 구분짓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이와같은 농경민족과 유목민족 사이의 투쟁과 반목의 역사는 고대 오리엔트(orient) 신화(神話)에서부터 그 흔적이 나타나고 있다. 중동(中東) 지역 메소포타미아는 여러 신(神)들이 웅거하며 서로 세력을 다투던 다신론(多神論)이 지배하던 사회였다. 그 가운데 목축신(牧畜神)이 도움무지이고 농경신(農耕神)은 엔킴도우이다. 그리고 여신(女神)은 이난나이다. 이난나는 이들 두 신 가운데 누구를 남편으로 할 것인가 고민하게 된다. 그리고 목축신과 농경신은 이러한 여신의 환심을 사기 위해 각각 자랑할 수 있는 제물을 드려 그 우열

을 다투게 된다. 그러나 경쟁은 목축신의 승리로 끝나고 만다. 여신 이난나가 목축신의 제물에 호의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이러한 오리엔트 신화를 배경으로 구약성서(舊約聖書)에도 두 민족간의 투쟁의 역사가 그려져 있다. 구약성서 가운데 창세기(創世記) 4장에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온다. 이 이야기는 성서가 기록하는 인류 최초의 형제살해(兄弟殺害)의 이야기이다. 그리고 농경민족과 유목민족 사이의 갈등의 역사를 기록한 최초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이야기는 하느님이 지어놓은 낙원인 에덴동산에서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금단의 실과인 사과를 따 먹고 에덴동산을 쫓겨나는 후일담(後日譚)으로 부터 시작된다. 금단의 실과를 따먹은 아담과 이브는 하느님의 형벌로 먹을 것을 얻기 위해 이마에 땀을 흘려야 했다. 또 일생 노동을 통해 생활을 영위할 수 밖에 없게 된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에 두 아들이 태어난다. 하나는 가인이고 다른 하나는 아벨이다. 아이들은 성장하여 직업을 갖게 되는데 큰아들인 가인은 땅을 경작하는 농경민(農耕民)이 되고, 동생 아벨은 양을 치는 유목민(遊牧民)이 된다.

어느날 두 형제는 그들이 열심히 일하여 얻은 소출을 가지고 하느님 앞에 바치는 경쟁을 벌이게 된다. 가인은 대지(大地)를 경작하여 수확한 땅의 첫곡식을, 그리고 아벨은 양의 첫새끼와 살진 양 한 마리를 하느님 앞에 바친다. 사건은 여기서 부터 시작된다. 하느님께서서는 동생 아벨이 바친 제물만 마음속으로 받으시고 형인 가인이 바친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에 가인은 크게 실망한다.

그리고 가인은 격분하여 살의(殺意)를 품고 동생인 아벨을 들녁으로 피어내어 돌로 쳐죽이게 된다. 아벨이 보이지 않아 이상하게 여긴 하느님은 가인을 향해 동생 아벨의 처소(處所)를 묻는다. 그러나 가인은 아무것도 모르는 듯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파수군(把守)입니까.> 하느님은 크게 노하여 가인을 단죄하게 되는데 이때 하느님의 가인에 대한 저주는 창세기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너는 무엇을 했느냐. 네 동생의 피의 소리가 온 땅으로 부터 호소해 온다. 너는 저주를 받아 이땅을 떠나거라. 이 토지가 입을 벌려 네 손으로 부터 동생의 피를 받았기 때문이다. 네가 땅을 경작하더라도 토지는 거의 너를 위해 열매를 맺지 않을 것이니라. 너는 이 땅의 방랑자(放浪者)가 될 것이니라.>

이것이 인류역사에 있어서 인간 불행의 시작을 알리는 기록이며 또 농경민과 유목민의 투쟁의 시작을 알리는 기록이다. 이와같이 농경민 가인은 유목민 아벨을 죽인 대가로 영원한 방랑자가 될 수 밖에 없게 된다. 그것은 분명히 죄(罪)의 대가였다. 그러나 하느님은 방랑자 가인이 누구에게도 죽임을 받지 않도록 그에게 하나의 징표(徵標)를 준다. 그리고 가인은 하느님께서 주신 징표를 몸에 두르고 하느님 곁을 떠나 에덴의 동쪽으로 이주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아담 후예들의 불행의 역사는 시작하게 된다.

이와같이 구약성서가 전하는 형제살해 이야기는 농경민족과 유목민족을 둘러싼 태고(太古)의 투쟁의 흔적을 기록한 것이다. 가인과 아벨은 각각의 문화, 즉 농경문화와 유

목문화를 대표하여 우열을 걸고 싸웠던 것이다. 현대판으로 이야기하면 쌀문화와 육식문화의 대립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투쟁은 완결을 보지 못한다. 결국은 가인에 의해 아벨이 살해되는 것을 통해 이 두 민족간의 투쟁이 피비린내 나는 것으로 마감되면서 하느님은 가인을 추방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그런데 이와같은 가인과 아벨의 투쟁, 유목민과 농경민의 투쟁은 곧 형태를 바꾸어 아브라함 시대에 재현(再現)된다. 구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식인 쌍둥이, 에서와 야곱의 장자권(長子權)을 둘러싼 형태로 재현된다. 태어나면서부터 털이 많고 성격이 급하며 사냥을 잘 하는 유목민 에서와 성격이 온순하고 재치가 있어 들을 경작하면서 천막생활을 하는 농경민 야곱의 투쟁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다. 다시말하면 에서는 유목민이고 야곱은 농경민이었다. 이 이야기는 어머니와 농경민 야곱이 공모하여 교활한 수단으로 아버지 이삭을 속여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는 이야기다. 결과적으로 장자권 싸움에서 농경민 야곱이 이기고 유목민 에서가 패퇴한다. 그러나 유목민 에서의 울분을 두려워한 야곱은 집을 떠나 결국 방랑자가 되고 만다(창세기 21장).

### 자주성 빼앗는 '엘리트 체질' 반성해야

앞에서 소개한 두 이야기에는 새로운 농경문화가 전통적인 유목문화를 압박하여 구축하려고 하는 사실과 궁지에 내몰린 유목민이 그들의 가슴 속에 증오와 적개심을 가지고 대결을 떠나가는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다.

또 그러한 양자의 원인과 숙명이 이들 이야기의 동기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두 민족간의 갈등의 역사는 현재 우리사회에도 재현되고 있다. 농경민족과 유목민족 사이의 이야기가 아닌, 토착사상(土着思想)과 수입사상(輸入思想)과의 대립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토착사상은 말할 것도 없이 농경의 사상이다. 쌀문화이다. 그러나 수입사상은 육식의 사상이다. 유목의 사상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 두 사상이 서로 대립하면서 토착사상이 수입사상에게 패퇴해 가는 형국을 이루고 있다. 다시말하면 우리나라 전통의 식생활이 서구의 햄버거나 스테이크 문화에 밀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식생활은 우리의 정신과 생명을 유지해 주는 기본이다. 따라서 식생활의 서구화(西歐化)는 우리의 정신을 혼란시키고 정신에 의해 만들어 지는 모든 가치와 문화를 송두리채 흔들어 버린다. 한마디로 자주성(自主性)을 빼앗아가 버리는 것이다. 이런 기회를 통하여 식생활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을 무시하고 서구 수입사상에 대한 권위를 부여한 지적 엘리트 체질에 한번쯤 반성을 촉구해 보고 싶다. **농약정보**